

연중 제 18 주일

제1독서 : 이사 55, 1-3

제2독서 : 로마 8, 35.37-39

복 음 : 마태 14, 13-21

숲 정 이

이 주일의 화답송

주님, 당신의 손을

별리시어, 저희 원을

채워 주소서.

강론

기적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김 선태 신부/ 신학원 교리부 담당

많은 사람들은 먼저 기적을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거나 하느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면 혹은 소경이 갑자기 볼 수 있다면 하느님을 믿겠다고 말한다. 이들에게는 기적이 먼저이다. 믿음은 그 다음의 일이다.

이런 기적들을 먼저 체험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느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는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루가 16,31).

복음은 믿음이 먼저라고 말한다. 오늘 복음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자.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빵을 많이 하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마태 14,16) 하고 말씀하셨다. 믿음에 의한 행동을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리고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

믿음이 우선이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재력 등을 과소평가하며 그렇게 행동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작은 것으로 시작하라. 하지만 믿으면서 행동하라.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가르침이다.

소리

'후3金시대' 개막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3선 대통령으로 추대 되었으나 '민주주의적 전통을 수립하기 위해서' 라는 이유로 끝내 사양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치와의 인연을 끊고 농사일에 전념하면서 3만 단어가 넘는 농지 윤작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꼽혔던 지미 카터는 81년 이취임식이 끝나자 빗더미의 고향 조지아에 있는 땅콩농장으로 돌아 갔다. 그는 불같은 정열로 저술활동을 했고, 대학 강단에서 등 새로운 일들을 찾아 하나씩 해나가면서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성공한 은퇴자'로 존경받고 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도 69년 그가 발의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즉각 고향으로 내려가 은퇴를 선언하고 죽을 때까지 파리에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나라 7명의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가. 장기집권을 하다가 이승만 전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끌어 내려졌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하의 손에 목숨을 잃는 비운의 생애를 마쳤다. 생존해 있는 4명의 전직 대통령들도 무슨 미련들이 그리 많은 것인지, 한결같이 서울에 살면서 패거리리를 지어 여기 저기 다니면서 국정 비판을 일삼고 있다.

특히 김영삼 전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까지 현정권을 비난하더니 끝내는 정치재개를 선언했다. 명분이야 어떻든 지역할거의 상징 '후3金시대'를 열어 놓은 것이다. 이 나라에는 3金외에 그렇게도 인물이 없다는 말인가. [모]

숲정이 산책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햇볕 다가온 팔월에는”

대희년이 불과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것을 알기라도 하는 양 이 무더위 속에서 곡식과 과일, 채소들은 최상의 성숙을 향하여 뜨거운 햇볕을 빨아들이며 그들 나름의 수고를 다하고 있다. 결실의 시간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아름답다. 결과야 조금 부족할들 어떠리. 최선을 다하는 동안 그 사이사이에 가득히 스며 들었을 마음과 정신이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만물이 결실을 향하여 뜨겁게 나아가는 때, 과연 대희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내 준비는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막상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결실이 없다면 낭패일 것이기 때문이다.

대희년 준비 마지막 해인 올 성부의 해에 우리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돌아가고자 노력해 왔다. 매번 대희년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은총의 때인 이 회년에 저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아버지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녀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맞아들이시어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주시나이다.”하며 기도해 왔다. 넘치는 사랑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녀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맞아들이시어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싶은 시간들인 것이다.

방랑과 방황과 순례에는 차이가 있다. 외적으로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이고, 목적도 방향도 없이 헤매는 내외적 상태가 방황이다. 그러나 순례는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갖고 길을 떠난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정처없이 흘러서간다.” 방황이고 방랑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인생 길에서 어디쯤에서 있는 것일까?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 여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방황을 하고 있을까, 방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가? 교회는 대희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올 해 성부의 해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방황과 반항을 끝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라고 호소하고 있다.

결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밤낮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따뜻하게 맞아들이실 준비가 되어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자. 이것이 우리가 팔월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마지막 남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인 것이다. “나부터 새롭게” “새날 새삶”이다.

기쁘고,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까지 153일 남았습니다.

청년성서 창세기 모집
 개강일 : 9월 둘째주 해당요일부터
 수강료 : 없음(교재비 - 3,000원)
 접 수 : (0652)285-0041 교구청
 청소년 교육국 (이 요한나 수녀)

송천중학교(소년원) 여름신앙학교
 일시 : 1999년 8월 3일(화)~6일(금)
 장소 : 전주 송천중학교 강당
 주관 : 사회교정 청소년사목 ☎ 288-9143
 * 신자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포도즙, 앙파즙, 봉어즙 신지식층
 효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다려드립니다

롯데건강원
 최 창 림(토마스)
 박 정 희(모니카)
 효자동 롯데A 상가 1층
 ☎ (0652) 225-4319

LG 에어컨 예약
 15~23% 할인 + 6개월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파격세일
 백제로 빙상경기장 건너편
 원 승 연(도 밍 고)
 ☎ (0652) 241-2000

세 광 당
 금, 은, 보석, 시계
 결혼예물 특별우대(상담환영)
 김 윤 중(베드로)
 박 명 자(마리아)
 코아백화점내 1층
 ☎ (0652) 288-0058/285-3061

동서로 삼익피아노
 피아노, 전자오르간, 전자악기 전문
 종합악기 판매장, 전자오르간 수리
 김 태 우(알퐁소)
 황 진 숙(안젤라)
 동서관통로 다가고 입구
 ☎ (0652) 288-7717-8

☺ 궁금해요

부득이한 경우로 주일이나 의무축일에 미사참례를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기도를 33번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엄밀히 말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3항을 보면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4항에는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한글도 모르고 성서도 라틴어로 된 책만 있어서 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33살까지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33번 바치면 미사참례를 안 했어도 대승이 된다고 가르쳤다는데, 사실은 교회법이나 기타 교회 문서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요즘 휴가철을 맞이해서 성당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이용해서 주일미사를 빠지고 대신 주님의 기도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지 주님의 기도 33번으로 주일미사의 커다란 의미를 대신 한다는 것은 편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서 어찌하면 더 큰 죄가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말은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죽어 가는 사람을 하루 종일 도와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본인 양심의 판단에 맡겨야겠지요.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일미사에 빠질 경우,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공소예절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모여서 또는 기회 있는 대로 합당한 시간동안 기도에 열중하기를 교회는 권장하고 있습니다(교회법. 1248조 1항 참조). 공소예절마저도 못할 사정이라면 미사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묵주기도, 선행, 성서봉독을 하시고 굳이 고백성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십이 (1356) 김병오



교구·제 단체 소식

1. 성직자묘지미사 : 8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 치명자산 성직자묘지
2. 남성62차 꾸르실료 : 8월 5일(목)~8일(주일), 천호피정의 집
3. 성모기사회 : 8월 7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4. 가톨릭 문우회 월모임 : 8월 7일(토) 오후 4시, 이방인

오늘의 기도

주님, 저에게 주신 건강을 잘 보전하여
필요할 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저에게 맑은 영혼을 주셔서
선하고 맑은 것을 분별 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시고
악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연질서에 순응하면서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3일에 선종하신 모친
이안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
도해 주시고 유족을 위로해 주신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신자분들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서석준, 석권, 석구 신부
석두 드림

성 소 모 임 부산 성 베네딕도 수녀회

일시 : 8월 5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호성동 성당 수녀회
문의 : 호성동(0652)244-0094
광안리 본원(051)753-1131-4

김희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회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이레침대공장

· 싱글 : 80,000원
· 더블 : 110,000원
· 쿤 : 160,000원
· 욕, 백반석 들침대
대표 김 미 숙(안젤라)
전주호남제일문사거리 ☎ 211-6424
군산 대성학원 1F ☎ 445-4570

제1회 PBC 창작생활성가제 접수마감 안내

접수기간 : 8월 2일(월)~8월 9일(월)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악보 5부
녹음테이프(참가곡), 사진 1매
참가곡 : 기존 음반, 타 음악계 출판작
을 제외한 모든 장르의 창작
생활성가 1곡
접수처 : 서울 평화방송 1층 안내데스크, 우편접수
문의처 : 평화방송 생활성가 담당자(02-2270-2317)
본선일지 : 9/1(토) 오후 7시, 동성고 대강당

성 소 피 정 한국외방선교회

일시 : 99.8.14(토) 오후 4시
~8.15(주일) 오후 4시까지
장소 : 한국의방선교회 신학원
(수원 가톨릭대학교 옆)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도구
참가비는 없음
신청 : 우편 또는 전화로 99. 8.31일까지
문의 : (02)673-2525 또는 0331) 292-8490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덕진 주임신부 272-5303 사무실 272-5302 주임신부 박찬길
 보좌신부 252-0383 수녀원 272-5304 보좌신부 김형수
 FAX 271-1937 유치원 252-0384 사목회장이 이동우

- ◎ 주일미사에 빠지지 말고 정성껏 참여하십시오
- 금주 모임: ① 사계양성후원회비 납부일 - 오늘 미사 전, 후
 ② 성모 성심, 까리따사 자모회 - 4일(수) 전 11시
 ③ 성시간 및 성체조배 - 5일(목) 6시 30분~후 7시 30분
 ④ 제대회 - 5일(목) 후 2시
 ⑤ 사목회 월례회 - 6일(금) 후 8시
 ⑥ 성모회 야유회 - 2일(월) 전 10시 출발, 바위산 가든
 - 청소년 여름행사를 위한 후원금: 천연천 5만, 김용운 3만, 조동근 안병문 각 2만, 김절자, 이운재, 서정환, 정영희, 김은희, 김희숙 하태순 각 1만, 간식제공 (빵사랑 - 빵 130개), 오성문구 - 아이스크림 120개, 소계 - 160,000원, 총계 - 9,014,450원
 - 전임자들은 본당 사무실에 들려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 헌금: 최명오(베드로) 10만원
 - 금주 전례: 해설 - 송귀현, 독서 - 이석관, 김덕희, 봉헌 - 덕진 32만
 - 차주 전례: 해설 - 김옥영, 독서 - 임성진, 강승이, 봉헌 - 덕진 33만
 - 금주 정소: 7일(토) 후 2시, 진복회, 성모 마리아 Pr.
 - 차주 정소: 14일(토) 후 2시, 중·고학생회, 조물주의 모친 Pr.
- 지난주 봉헌금: 1,723,610원 □ 교무금: 2,138,000원

동산 주임신부 212-3232 사무실 212-3231 주임신부 김진화
 보좌신부 212-3722 수녀원 212-3233 사목회장 최승호

- 오늘 모임: 우리들의 어머니 Cu. - 공식미사 후
- 주간 모임: ① 에스텔회 - 6일(금) 전 11시 ② 구역(반)모임 - 6일(금)
- 차주 모임: ① 천상은총의 어머니 Cu., 안나회 - 공식미사 후
 ② 동성회 야유회 - 고산
- 성수예절: 오늘 공식미사 중
- 사목회 월례회 및 수련회: 12일~13일, 장수 와룡 휴양림
- 남성 62차 꾸르실료: 5일~8일, 천호 피정원(야고보)
- 청년회 여름 수련회: 2일(월)~4일(수)
- 신앙학교 후원금: 은총기도회 3만, 도움의 어머니 Pr., 1만 빈센시오 5만, 김영원 5만, 은총의 어머니 Pr., 3만, 정보순 2만 에스텔회 5만, 박순자 2만, 허광웅 10만, 셋별 Pr. 안만기 율료 3상자, 최병식 3만
- 사제관, 수녀원 신축헌금: 정길수 20만, 한귀석 10만, 서한기 10만 유인기 2만, 입금누계 - 7,879
- 정소 안내: 금주 - 작은 형제들의 모후 Pr. 차주 - 순교자의 모후 Pr.
- 금주 전례: 해설 - 임명순, 독서 - 김호중, 임금자 봉헌 - 박유근, 전전자
- 차주 전례: 해설 - 김원일, 독서 - 손순택, 노경례 봉헌 - 송영섭, 신금옥

□ 지난주 봉헌금: 1,023,050원 □ 교무금: 1,265,000원

삼례 주임신부 291-8469 사무실 291-2018 주임신부 김순태
 보좌신부 252-1606 수녀원 291-3196 사목회장 강영만

- 금주 모임: ① 구역(반)장 월례회 - 후 8시
 ② 아가페회 - 금요일 전 11시
- 차주 모임: ① 요셉회 - 9시 30분
 ② 성모회 - 후 8시
- 교적을 정리합니다: 전신자본들의 협조 바랍니다
- 남성 62차 꾸르실료 교육: 8월 5일~8일, 천호 피정의 집
- 중·고등부 여름 하계수련회를 ...어려운의 성원아래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도움주신 모든 형제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헌금: 이정인(그레고리오) 10만
- 차주 정소: 대명 아파트, 우성 아파트
- 금주 전례: 특전미사 해설 - 김세연, 독서 - 서승민, 문숙자 공식미사 해설 - 최숙경, 독서 - 이광일, 박미라 제물봉헌 - 한충길 부부
- 차주 전례: 특전미사 해설 - 김옥화, 독서 - 최홍식, 이순옥 공식미사 - 해설 - 윤천수, 독서 - 박종선, 이영애 제물봉헌 - 박정근 부부

□ 지난주 봉헌금: 836,960원 □ 교무금: 758,000원

송천동 주임신부 254-2778 사무실 254-2777 주임신부 박대덕 사목회장이 진호

- 금주 모임: ① 꾸리아 - 8월 1일(주일) 공식미사 후
 ② 성모회, 모니카회 - 3일(화) 전 10시
 ③ 구역(반)장 월례회 - 4일(수) 후 2시
- 차주 모임: ① 요한회 - 8일(주일)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 - 10일(화) 저녁미사 후
- 예비신자 교리가 9일(금) 금요일부터 오전반(10시)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자는 예비신자의 전례와 기도생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각 구역에서 전임자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비신자 인도와 쉬는 자 권면에 최선을 다합니다
- 전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공아파트 - 김진아(유리안나)
- 감사 헌금: 최태선(안토니오) 10만원, 박영희(바울라) 5만원 * 감사합니다

상삼례 주임신부 291-0790 사무실 291-0832 주임신부 한병현
 수녀원 291-0833 사목회장이 이재갑

- ◎ 생활말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 성전 신축 기금: 꾸리아 179만원, 월계 - 179만, 총계 - 478,902,294원
 - 초·중·고생들의 신앙학교를 위한 잔조금: 익명 7만, 임덕순, 주선우 강신일, 최종길, 정상배 각 3만, 소병길, 안나회 각 5만, 홍인숙 윤용식, 신태석, 강신철 각 2만, 박필근 30만, 물품 도와주신 분 - 신상화, 최평식, 사거리 정옥경, 김동진, 강창수, 최명숙 * 차량 협조와 차량은행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남성 62차 꾸르실료 교육: 8월 5일(목)~8일(주일) 정상배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여성 66차 꾸르실료 교육: 12일(목)~15일(주일), 고순희 * 많은 기도 바랍니다
 - 경로 잔치: 6일(금) 전 8시미사 후, 주관 - 애영희 * 저녁미사 없음
 - 오늘 모임: 안나회, 성모회, 아가페회 7 주간 모임: ① 사목회 월례회 - 5일(목) 후 8시 ② 구역(반)장 모임 - 7일(토) 후 8시
 - 감사 헌금: 오서운 3만원, 김베드로 100만 * 감사합니다
 - 금주 전례: 해설 - 강희순, 저녁 - 이미란 독서 - 박경열, 최평식, 고순희, 봉헌 - 김자선 부부
 - 차주 전례: 해설 - 김윤오, 저녁 - 이석 독서 - 임명순, 최종길, 이미란, 봉헌 - 강창수 부부
 - 성당 정소: 7일(토), 갈바리아 성전, 여왕이신 마리아 Pr.
- 지난주 봉헌금: 628,500원 □ 교무금: 984,000원

송천동 주임신부 254-8560 사무실 274-1004 주임신부 함기홍
 보좌신부 254-8561 수녀원 254-1142 보좌신부 함진영

- 꾸리아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주간 모임: ① 울드레야 - 3일 후 7시
 ② 구역(반)장 월례회 - 4일 전 11시
- 꾸르실료 남성 62차: 8월 5일~8일, 천호 피정의 집 김광웅(아가비도), 송길수(안토니오) 정철우(실바노)
- 교적을 정리합니다: 변경된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을 월별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 분당정소: 2구역 - 7일 전 10시
- 금주 전례: 해설 - 이정봉, 독서, 봉헌 - 1구역
- 차주 전례: 해설 - 박하진, 독서, 봉헌 - 2구역

□ 지난주 봉헌금: 1,372,800원 □ 교무금: 1,600,000원

숲정이 주임신부 276-1320 사무실 252-7366 주임신부 김병환
 보좌신부 252-1606 수녀원 252-9567 보좌신부 정인선

◎ 여름 신앙학교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여름 신앙학교를 위한 잔조금: 51명, 12단체, 계 3,677,000원
- 초·중·고 교리교사 단합대회: 6일(금)~8일(주일), 지리산 뱀사골
- 청년연합회 단합대회: 7일(토)~8일(주일), 지리산 뱀사골
- 금주 모임: 성모회, 푸른숲, 하상회 - 공식미사 후
- 차주 모임: 울드레야 - 공식미사 후
- 남성 62차 꾸르실료: 5일(목)~8일(주일), 천호 피정의 집 박병남(안드레아), 조권선(안토니오)
- 감사 헌금: 류만영(빅토리오), 김정자(엘리사벳) 각 10만원
- 윤란드리 수녀님 휴가: 2일(월)~11일(수)
- 사무원 휴가: 2일(월)~7일(토)
- 수녀원 건물 구입 헌금: 고영성(50만), 정해수(20만), 유정숙(10만) 정창환(10만), 김대원(10만), 계 - 40,946,500원
- 다음주 분당정소: 1구역 3만 12 미사안내: 애덕의 모후 Pr.
- 금주 전례: 해설 - 김문숙(보나), 독서 - 황호남, 손숙희
- 차주 전례: 해설 - 심연무(아오스덤), 독서 - 김중환, 박정현

□ 지난주 봉헌금: 2,508,530원 □ 교무금: 3,714,000원

7. 여름신앙학교 및 산간학교에 도움주신 분 - 소중호(벨라도) 50만 요한회 - 5만, 성모회 - 10만 * 감사합니다

8. 유익한 휴가가 되길 바라며, 휴가기간중 신앙생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9. 금주 전례: 배관철 10. 차주 전례: 백기철

11. 금주 정소: 11구역 (현대 3차A 306-310동) 토요일 10시

이주일의 생활말씀 위우고 실천하기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실천 사항 - 가까이 있는 이웃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가 관심을 가집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92,780원 □ 교무금: 885,000원

쉬고 있는 교우에게 숲정이를 보냅니다.